

칭포

월간건설신문

Email : khong3000@gmail.com Tel : 021-3002-9090
광고문의 : 0821-1122-8827, 0815-1066-5868

VOL. 77
2023 / 05

OK컨설팅 
건설면허1달 완성
인허가/비자/세무/부동산/여행사
사무실 연락처 : 021)7504-578
한국인 연락처 : 0852-8185-5551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재인도네시아 한국 건설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ONTRACTORS IN INDONESIA

한국 · 인도네시아 “인니 신수도 이전 사업 협력 강화”

송도서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ADB 계기 韓 기업 해외 수주 지원 방기선 차관, 인도네시아 신수도청장관 면담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방방 수산토노 인도네시아 신수도청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2023.5.3 [기획재정부 제공]

한국과 인도네시아(인니) 정부가 인니 신수도 이전 사업과 관련해 양국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인천 송도를 방문한 인도네시아 방방 수산토노 신수도청 장관과 만났다.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장인 방 차관은 자신을 대한민국의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영업사원으로 소개하면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논의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제안했다.

발릭빠빰 공항과 신수도 행정중심지를 연결하는 최대 10억달러 규모의 해저 터널 건설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참여하고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이 인도네시아에 정책 자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니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방 장관은 양국 정부·기업들이 맺은 신수도 협력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이행하는데 한국 정부의 관심을 요청

했다.

인도네시아는 2045년까지 사업비 40조원 규모의 수도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3일부터 이틀간 인천 송도에서 ‘프로젝트 플라자’를 개최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를 계기로 인프라·에너지·스마트시티 분야 유망 프로젝트 발주처 40여곳을 한국에 초청한 것이다.

첫날 행사에서는 ADB 관계자와 해외 발주처, 국내 관련 기관·기업인 등 150여명이 모여 해외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 인프라 개발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프로젝트, 튀르키예 재건 프로젝트, 필리핀의 해상교량 건설 및 교통망 개발 프로젝트, 방글라데시 전력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 등에 대한 각국의 설명이 이뤄졌다.

둘째 날인 4일에는 해외 발주

처와 국내 기업 간 일대일 프로젝트 상담회가 열린다.

기재부는 “도로·공항·항만 등 인프라, 송배전·원전·신재생 등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분야별로 해외 23개국의 유망 프로젝트 발주처 40여곳이 대거 방한했다”며 “국내 80여개 기업과 160여건의 대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는 제너럴일렉트릭(GE), 트립블 등 미국 기업과 우리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상담을 진행한다.

필리핀 에너지부 차관은 방한 기간 고리 원전을 직접 방

문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조율 과정에서 취소됐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에서 “스마트시티, 미래모빌리티, 정보기술(IT) 등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ADB와 함께 역내 스마트 인프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 차관은 이날 ADB 연차총회를 계기로 방한한 앤드루 리 호주 재무차관과 만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인도·태평양 지역 인프라 및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 차관은 면담에서 한국·호주의 산업부 간 협의 채널

인 핵심 광물 공급망 워킹그룹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상호협력하자면서 핵심 광물 관련 민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호주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방산 분야의 협력을 통해 호주와 안보 동반자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리 차관은 한국의 고부가가치 생산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전기차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태평양 도서국 인프라 조달,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 및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연합뉴스]

이상덕 대사 “인도네시아 금융서비스위원장과 금융협력 면담”

2일 마헨드라 시레가 위원장 면담... 2일 양국 원-루피아화 직거래 촉진 MOU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는 5월 2일 마헨드라 시레가(Mahendra Siregar) 인도네시아 금융서비스위원장(OJK chairman)을 면담하고 금융협력을 논의했다.

마헨드라 시레가 위원장은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UI)에서 학사, 멜버른의 모나쉬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86년에 외무성에서 전문적인 경력을 시작했다. 주미 인도네시아 대사를 역임하고 외교부 차관직을 거

쳤다.

한편 한국은행은 2일 이창용 총재가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와 양국 원-루피아화 직거래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두 나라는 경상-직접 투자 거래 과정에서 민간 은행이 원화·루피아화 직거래를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가 마헨드라 시레가 인도네시아 금융서비스위원장을 면담했다. 사진=주인도네시아 대사관

HKI PT.HANJIN KONSTRUKSI INDONESIA
HJ PT.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www.hanjinpower.com

Jl. Modern Industry III/4 Kawasan Industry Modern Cikande RT 000, RW 000 Desa / Kel. Nambo Ilik Kec. Kibin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한국, 40조원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사업 수주전 박차

ADB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

추 부총리, 인도네시아 장관 만나관세인하·부가세 환급 등 논의
기재부 차관도 관심·지지 당부침체 직면 한국경제 활로 모색



▲토론의 장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사흘째인 4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된 비즈니스 세션에서 68개 회원국 대표들이 관련 의제를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개막해 막바지에 다다른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우리나라 경제수장들은 국내 기업들의 홍보 및 해외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출기업 독려와 다자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들어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4일 ADB 연차총회에서는 경제회복과 관련된 논의들이 주로 오갔다. 루이 커시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아태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제금융센터 주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7%에서 올해 3.8%로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당초 올해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 로 예상했다. 그러나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하반기에도 경기가 살아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40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의 '신(新)수도 이전 사업' 수주전에 박차를 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송도에서 ADB 연차총회에 참석한 스리 플라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을 만나 원자재 관세 인하와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 단축 등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식수 고갈 등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045년까지 40조 원을 투입하는 수도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도 전날 송도에서 인도네시아의 밤방 수산토노 신수도청 장관을 환담하고, 우리 기업의 신수도 이전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등

과 함께 전날부터 이날까지 인프라, 에너지 분야 등의 유망 프로젝트 해외발주처 40여 곳과 국내 기업 간 일대일 상담회 등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플라자' 를 진행하기도 했다.

5일 폐막하는 이번 총회는 주요 행사가 이날부로 대부분 마무리됐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의장 자격으로 예산 등 ADB의 1년간 활동과 향후 계획에 대한 주요 안건을 상정 및 의결하는 '비즈니스세션' 을 주재했다. 추 부총리는 "4년 만에 대면으로 한자리에 모인 각국 대표와 ADB 측에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 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빈곤·기후·보건 등 분야에서 역내 회원국들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ADB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면서 "ADB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후기술허브(K-Hub)' 를 비롯해 한국 정부는 ADB와의 다층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문화일보]

재외동포청 본청 인천에 설치... 통합민원실은 서울 광화문에

대사관 연계 업무 고려해 광화문에 민원실...
본청서도 민원 업무 가능
이원 설치 '비효율' 지적에
"동포 입장에서선 여러 곳 있는 게 좋다 생각"

다음 달 공식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본청이 인천에, 통합민원실이 서울에 각각 들어서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외교부는 "오는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고 8일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들어서는 정부 전담기구로, 외교부 산하의 첫 청(廳)급 기관이다.

재외동포의 편의성·접근성, 업무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하고 최적 입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과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은 인천에 두기로 했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다만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 으로 제공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민원 업무 처리 효율성을 고려해 광화문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외국 국적인 재외동포들이 국적 사무, 사증 업무 등을 보려면 국적국 대사관과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가깝게 있는 게 편리하다는 면이 많이 고려됐다" 며 "대사관들의 입지만 아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외교부는 오는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본청을 인천에 두고,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는 서울 광화문에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니면 광화문에 둘 이유는 없었다" 고 말했다.

정부는 재외동포 본청에도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분소를 설치해 동포들이 서울과 인천 두 곳에서 모두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적, 병역, 보훈, 사증 업무만 처리할 수 있었던 기존 민원 범위를 확대해 세무, 연금, 관세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이 다음 달 5일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인천시,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151명 규모로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재외동포정책과, 교류협력국으로 구성되며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는 총 25명이 배치된다. 재외동포청을 통해 재외동포들에게 국내와 같은 수준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F1 LOGIX
We are anywhere you are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4PL
항공, 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F1 LOGIX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인니 5% 성장 · 4%대 물가 · 외국인 투자확대...경제혼풍 이어가

루피아 강세 · 금리 동결 이어지며 내수도 강세 내년 선거 앞두고 투자 지연 등 우려도



▲인도네시아 의류 공장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부 데콕시에 있는 한 의류 공장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출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탄중 프리옥 항구에 있는 자카르타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트럭이 컨테이너를 하역하고 있다.

자원 부국 인도네시아 경제가 높은 원자재 가격과 외국인 투자 확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7일(현지시간) CNBC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년 전보다 5.03% 성장했다. 당초 금융시장에서는 4%대 성장률을 예상했지만, 이를 넘어선 것이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지난해 5.31% 성장하며 9년 만에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5%대 성장률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세계 경제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는 석탄과 팜유 수출이 늘어나면서 지난 1분기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1.68% 늘어났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수출 증가율

이 둔화했지만, 확장세가 이어지는 것이다.

ADVERTISEMENT

여기에 외국인 투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1분기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1년 전보다 20.2%(루피아화 기준) 증가했다. 특히 금속 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의 세계 1위 보유·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니켈을 원광 형태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련·제련을 거친 제품 형태로만 수출하고 있다. 단순 광산업에만 의존하기보다 금속가공 산업을 키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니켈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인도네시아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한국 포스코[005490]

역시 최근 인도네시아 할마헤라 섬 웨다베이 공단에 총 4억4천 100만 달러(약 5천900억원)를 투자, 니켈 중간재인 니켈메트 생산 공장을 만들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구리와 보크사이트 등 원광 수출 금지 품목을 확대해 금속 가공 산업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물가가 안정되면서 통화긴축 정책을 펼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강점이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33%로 2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유지했다. 한때 6%에 육박했지만, 이제는 목표치(2~4%)에 근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BI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3.5%에서 5.75%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오히려 경기 호황으로 루피아

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달러 대비 인도네시아 루피아 가치는 올해 들어서만 6% 상승했다. 여기에 세계 경제 둔화로 원자재 가격 하락도 예상된다. 지난 3월 인도네시아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로 28개월 만에 감소했다. 1년 전보다 팜유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수출액이 줄어든 것이다. 캐피탈 이코노미스트의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개러스 레더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면 인도네시아 수출이 부진할 수 있다"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4.8%에 그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 고속성장...韓기업 진출 기회

<2023년 국내기업의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참여 현황>

연번	한국	인도네시아	주요 내용
1	LG CNS	국영항공사의 자회사 (GMF Aero Asia)	스마트공항 운영 솔루션 협력
2	스마트도시협회	국영통신사(Telkom)	스마트시티 개발 촉진 협력
3	ESE	국영통신사(Telkom)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공동 추진
4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국영금융공사(Danareksa)	인프라, 도시개발 사업 금융 협력
5	삼성물산	국영건설사(WIKA)	자카르타 메트로, 신수도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6	에코퀀트	국영철도공사(INKA)	스마트 도로 및 조명 사업 협력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정리]

▲국내기업의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참여 현황 (표=코트라)

인니 스마트시티 시장 2028년 까지 연평균 20% 성장 도시화·기후변화 문제 해결... 국가 신성장 동력 확보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이 신수도 이전 사업과 맞물려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코트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의 '해외 프로젝트 시장의 새로운 기회,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는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이 2021~2028년 연평균 19.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기준 인도

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98억 달러(약 13조200억원)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 성장세는 도시화·기후변화 문제 해결, 신성장 동력 확보 등에서 주목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2045년 전체 인구 가운데 최대 80%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수도 인프라TF팀 조사를 보면 국토 6.7%에 해당하는 자바섬에 인구 56.6%, GDP 58.5%가 집중돼 있다. 특히 수도 자카르타는 국토의 0.3% 수준인데 반해 인구 11%가 몰려 있다. 이러한 도시 인구 과밀화 현상은 주택·식수 부족, 환경·위생 악화, 교통체증 등 사회·경

제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하수 처리, 교통 시스템 개편 등 도시 인프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스마트시티 기술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신도시 이전은 건설 단계부터 스마트 시티 설계를 고려해 도시의 물리적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도시에 집중되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을 위해 지난해 국가표준(도시) 준수 및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규정한 스마트시티 의무 서비스 인 교육·주택·보안 등 6개 분

야와 데이터 통합 플랫폼 등 ICT 분야에서 스마트시티 시장 성장세가 두드러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이전과 관련해 녹지 면적 75% 이상, 신재생 에너지 100% 적용 등 개발 주요 원칙 확립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2030년까지 국가 탄소 배출의 29% 감축을 목표로 폐기물의 에너지원 전환을 위한 처리 시설 건설,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가 2045년 고소득 국가 진입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를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yu@hotmail.com

가루다항공, 서울-자카르타 노선 운항 늘려 기존 주2회에서 5월 주3회, 9월 주4회로 증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속카운터: G31 ~ G37

노선	편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항일	적용일
인천-자카르타	GA879	10.35	15.55	수/토	- 5월6일 까지
		10.35	15.35	화/수/토	5월 8일 - 9월 6일
자카르타-인천	GA878	23.25	08.30(+1)	화/금	- 5월6일 까지
				월/화/금	5월 8일 - 9월 6일
				월/화/목/금	9월 7일 부터
인천-발리	GA871	11.25	17.20	일/월	3월 26일 부터
발리-인천	GA870	01.05	09.15	일/월	

▲인천-자카르타,발리 운항 안내 [가루다항공 웹사이트]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사가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이하 가루다항공)이 인천-자카르타와 인천-발리 노선 운항을 늘린다.

가루다항공은 인천-자카르타 노선 운항을 현재 주2회에서 5월에는 주3회로, 9월에는 주4회로 증편한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5월 8일부터 주3회(화.수.토요일) 운항하며, 9월 7일부터는 주4회(화.수.금.토요일)로 증편한다. 인천공항에서 오전 10시35분에 출발해 자카르타공항에 오후 3시35분 도착한다.

한편 인천-발리 노선은 현재와 같이 주2회 운항한다. 가루다항공은 이번 증편으로 수라바야, 족자, 마까사르 등 인도네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당일 연결이 가능해져 다양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가루다항공은 승객들의 편의를 위한 혜택을 제공한다.

가루다항공은 3월30일부터 자카르타 및 발리 공항 출입국시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 승객을 위한 전용 라인을 별도로 운영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가루다항공 이르판 세티아푸트라 CEO는 “이번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증편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가루다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김재훈의 세무상식

미수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

회수 불능의 경우에는 대손 처리를 하지만 세법상 손금산입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부 장관령 PMK 105/PMK.03/2009 호에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1조

재무부 장관의 이 규정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납세자는 납세자, 납세자 및 세금 납부자를 포함하여 세법 및 규정의 조항에 따라 납세의무와 권리를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이다.

2.명백히 회수불능인 채권은 납세자가 최대 또는 최종 회수 노력을 했음에도 명백히 회수할 수 없는 사업분야에 따른 정상적인 비즈니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이야 한다.

3.일반 또는 특별 간행물은 다음을 포함하는 간행물이다

- a. 공개 출판은 전국 규모의 신문/잡지 또는 기타 일반 인쇄 대중 매체의 출판에 대한 공지 사항을 게시하는 것 또는
- b.특별발행은 국영은행연합회(HIMBARA)/국가민간은행연합회(PERBANAS) 발행에 관한 공지사항 및/또는 인도네시아 은행의 특별발행/공지사항을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1.은행, 금융 기관, 산업, 무역 및 기타 서비스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명백히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

2. 제1항에서 명백히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납세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1.제2조에 따라 명백히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a.명백히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해당 연도에 채무자의 소득으로 계상된 경우

b.납세자는 분명히 징수할 수 없는 미수금 목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c.명백히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지방법원 또는 국고채를 취급하는 정부 기관에 회수를 위해 제출되었거나,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채권 상각/채무 탕감에 관한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명백히 회수할 수 없거나, 일반 또는 특별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채무자가 일정 금액의 채무에 대해 해당 채무를 탕감받았다는 확인이 있는 경우.

제4조

1. 제3조 1 b항에 따라 세무국에 제출되는 명백히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목록에는 이름, 납세자 식별 번호, 주소 및 금액의 형태로 채무자의 신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2. 3조 1항 c에 언급된 조항의 이행은 다음을 첨부하여 수행된다.

- a.지방 법원 또는 주 채권을 처리하는 정부 기관에 추심 사건을 제출했다는 증거 사본; 또는
- b.공증인이 승인한 미지급금/지급금 상각에 관한 서면 동의서 사본; 또는
- c.일반 간행물 또는 특별 간행물의 출판 증명서 사본; 또는
- d.채무자의 승인을 받은 일정 금액의 채권 상각에 대해 채권자가 승인한 채무자의 상각 확



김재훈 대표

인서가 포함된 서신.

3. 미수금 목록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는 연차신고서(SPT) 제출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제5조

미성년 채무자 또는 제3조에 언급된 기타 미성년 채무자가 명백히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이름, 납세자 식별 번호, 주소 및 미수금 금액의 형태로 채무자의 신원을 포함하는 지명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제6조

재무부 장관의 이 규정으로 재무부 장관령 번호 130/KMK.04/1998 은 취소하고 무효로 선언한다.

제7조

이 재무부장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C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i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제세무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e-mail: kimjhoon@bngconsulting.co.kr

톱슨 목금형 (톱슨발형)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 생산성 향상
- 짧은제작기간
- 정밀성
- 품질 향상
-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빼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1987busan@naver.com
http://www.bsllas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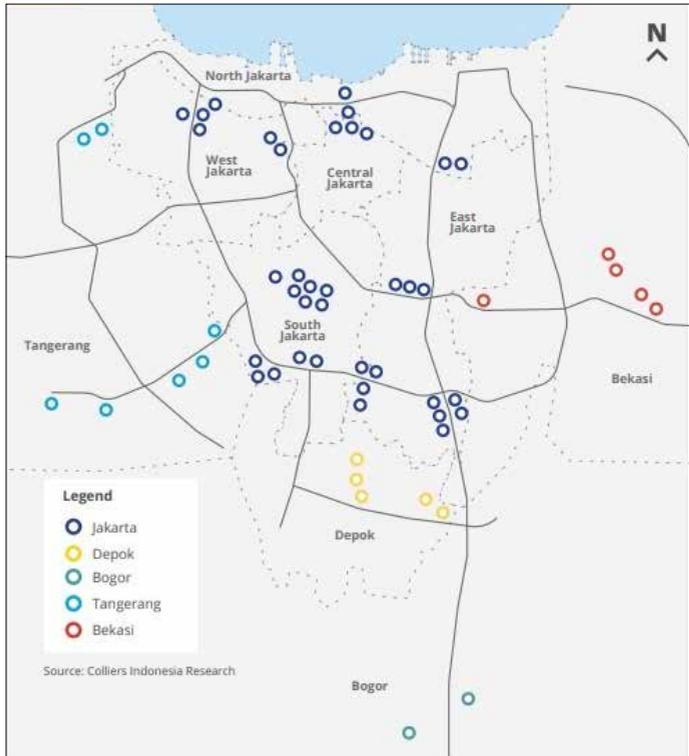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인도네시아 수도권, 역세권 아파트 수요 증가세

아직 비역세권 아파트 구매가 더 많아
실제 구매로 이어지려면 정부의 대중교통 인프라 개발 계획이 중요



▲자카르타와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계획도 [출처: 콜리어 인도네시아 1분기 보고서]



▲자카르타와 위성도시의 역세권 아파트 프로젝트 [출처: 콜리어 인도네시아 1분기 보고서]

개인 차량 유지 비용 상승과 실거주 목적의 구매자가 증가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도권의 역세권(대중교통지향형개발, Transit-Oriented Development)에 아파트 수요가 늘 것이라고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콜리어 인도네시아

(Colliers Indonesia)의 전망을 인용,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역세권 개발은 인도네시아에서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지만, 이미 TOD 프로토타입(역세권 초기모델)이 수도권에 존재한다. 국영 철도회사

KAI(PT Kereta Api Indonesia)가 자카르타와 위성도시인 보고르, 데벡, 버까시, 땅그랑 등을 연결하는 통근열차를 운영하면서부터 이들 지역에 역세권 프로토타입 아파트가 형성되고 있다. 콜리어 인도네시아의 연구책임자 페리 살란또는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연료비, 자동차세 등 자동차 유지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이 전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역세권 주택 수요 증가가 아파트 수요 증가와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역세권 아파트 프로젝트 성공 조건으로 저렴하고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페리는 이 보고서에 역세권 아파트 판매 수치는 “여전히 최적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자카르타에 경전철(LRT)와 도시철도(MRT)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역세권 아

파트가 비역세권 아파트보다 반드시 더 잘 팔린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콜리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자카르타 MRT 주변에 개발된 역세권 아파트는 이미 형성된 상업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대중교통을 부가적인 가치로 보는 중상류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어 보고서는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역세권 고층 아파트 구입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로, 부동산을 쉽게 임대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2년 기간에 역세권 아파트 프로젝트 판매율이 10.3% 증가한 반면, 기존 아파트 프로젝트의 판매율은 3.8% 증가에 그쳤다. 이는 역세권 아파트 프로젝트의 수용률이 비역세권 프로젝트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2017년 자카르타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시작된 역세권과 비역세권 프로젝트 15건을 비교했다. 역세권 프로젝트는 열차역 또는 전철역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거나 반경 750m 내

에 위치한 고층 주거용 건물로 제한했다. 이번 조사에 사용된 역세권 아파트는 대부분 단위면적 당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형 아파트로, 아파트 1동에 1,000가구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한편 대부분의 비역세권 아파트는 가구 규모가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단위면적 당 판매가격이 더 높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역세권 아파트 구매자의 61%는 대중교통 인프라 가까이에 살기 원하는 임차인들에게 임대할 목적 즉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고, 직접 입주하려는 목적으로 구매한 사람은 39%였다. 이 보고서는 현재 아파트 시장을 주도하는 잠재적인 구매자들은 상대적으로 자본수익률이 낮은 환경에서 부동산 임대료로 수입을 늘리려는 투자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썼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주)정석 테크 아바디
PT. JEONGSUK TECH ABADI
Contractor, Engineering, Electrical & Supplier

전기공사

30

년의 시간을
한인기업과 함께 해 왔습니다!

Jl. Lingkar CBD Palem Semi Ruko Kav. No.33-35, Kel. Panunggangan Barat
Kec. Cibodas, Kota Tangerang, Banten Zip Code 15139
Tel. 021 39720121 Email. baeksy68@hanmail.net

포스코홀딩스, 세계 1위 니켈 보유·생산국 인도네시아에 니켈제련공장 건설



▲(사진=포스코홀딩스 제공)

포스코홀딩스가 국내 기업 최초로 이차전지소재의 핵심 원료인 니켈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다.

최근 포스코홀딩스는 세계 1위의 니켈 보유·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 니켈제련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니켈제련공장이란 니켈을 함유한 광석을 녹여 이차전지소재에 사용하기 위한 니켈 중간재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과 용량을 결정하는 핵심 원료로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니켈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의 니켈제련공장은 인도네시아 할마헤라 섬 웨다베이 공단에 위치할 예정이며, 연간 5만2000t(니켈 함유량 기준) 수준의 니켈 중간재(니켈매트)를 생산하게 된다. 이는 전기차 100만대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총 4억4100만달러(약5900억 원)를 투자해 연내 공장을 착공하고 2025년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 니켈 보유국인 동시에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및 산업공단 인프라 지원 등의 혜택을

을 부여하는 등 국가적으로 니켈 생산 전 밸류체인(value chain)에 걸친 산업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인도네시아 니켈제련공장 투자를 통해 니켈 중간재의 효율적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니켈광산 및 제련사업 합작투자 등을 이어나가 안정적인 글로벌 니켈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그룹내 이차전지소재 원료의 자급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포스코그룹은 뉴칼레도니아 원료법인 NMC(Nickel Mining Company)로부터 니켈 광석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고순도 니켈을 생산하는 연산 2만t 규모의 이차전지용 고순도 니켈공장을 광양에 건설 중이며, 2021년 호주 니켈 광산·제련 업체인 레이븐소프 지분 30%를 인수해 호주산 니켈 공급망을 확보했다. 또한 전남 광양에 소재한 포스코HY 클린메탈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및 중국 절강화포의 전구체 생산 등을 포함해 2030년까지 니켈 22만t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

인니 보건부, 코로나-19 비상 사태 해제 위한 전환 준비



▲사회활동제한조치(PPKM) 해제 후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진 자카르타 거리 모습/2022.12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상태를 3년 4개월 만에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이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인도네시아는 이전에 WHO와 협의하여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보건부 대변인 모함마드 샤릴에 따르면, "WHO가 PHI-EC 상태 종료를 발표하기 얼마 전 인도네시아를 위해 전염병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WHO 사무총장 및 제네바와 자카르타에 있는 WHO 팀과 협의했다"며 WHO는 인도

네시아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의 전환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건부 부디 구나 사디킨 장관이 WHO 사무총장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에게 인도네시아가 국가 코로나-19 비상상태를 종료가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했다고 7일 리뿌판6이 보도했다.

정부는 WHO가 국가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한 2023~2025년 코로나19 대비 및 대응 전략에 따라 팬데믹 상태를 해제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7일자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1,295명이었으며, 지난 며칠 일일 확진자는 평균 2천 명 안팎으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팬데믹 비상사태가 해제되었지만 코로나19 장기 대응을 위한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WHO도 강조한 바와 같이 계속해서 대비와 경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카르타경제신문]

에스엔이노베이션, HVLS팬 인도네시아로...수출 기지개

에스엔이노베이션(대표 정영준)이 날개 지름 5m(LCF500) 산업용 공기순환 팬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한다고 4일 밝혔다.

에스엔이노베이션은 친환경 SR모터로 대형 공기 순환 팬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 업체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제품을 자체 생산해 전체 매출 중 동남아 수출 매출이 70% 이상이었다"

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출이 전면 중단돼 타격이 매우 컸다"고 했다.

회사에 따르면 에스엔이노베이션의 HVLS팬은 에어컨 전력의 10분의 1로 약 330㎡ 공간의 공기를 입체 순환시켜 선풍 효과는 물론 습도 제거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장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 사례가 늘어나면서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에스엔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수출 위기로 인해 국내 영업에 힘써오면서 최근 지자체나 공장, 체육시설 등에도 설치 수요가 늘고 있다"며 "더욱 뛰어난 성능을 갖추면서도 소음과 소비전력을 줄인 신모델로 스마트



▲인도네시아 수출 출하식에서 에스엔이노베이션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사진제공=에스엔이노베이션

축산 및 농장 등으로 적극 진출하겠다"고 말했다.

<http://space.megaenergi.id>
EPC Service & Energy Business (PLTU, PLTA)

창립 20주년
발전소 상업운전 4주년

인도네시아 에너지사업을 주도하는 혁신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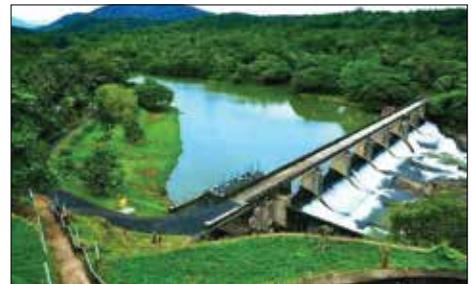
저희 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2002년 전기공사 전문업체로 시작하여
전기, 계장, 기계, 건축, 토목 분야에 이르기까지
20년간 꾸준히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EPC 종합건설 서비스 업체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에너지 IPP사업에도 진출하여
자체 화력발전소 1기 시공/운영 및 전력판매 중이며,
친환경 에너지 수력 및 태양광 사업에도 지속 투자하며
에너지 사업의 Developer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무랑 화력발전소 (보유지분98%, EPC수행)



라노야뽀 수력발전소 (IPP추진중)



스페이스 본사 및 생산설비 (제1,2,3 공장) 전경

Jl. Damar Blok F1-03 Delta Silicon II, Lippo Cikarang, Cibatu, Cikarang Selatan - Bekasi
Hunting 021) 8990-2215, Fax 021) 8990-2223 / Website : <http://space.megaenergi.id>
연락처 : 사업관리팀 안민성 HP : 0813-1684-5713 / 이메일 : anminsung@megaenergi.id

SPACE TECHNOLOGY
MECHANICAL, ELECTRICAL ENGINEERING & MANUFACTURING

“재외 언론인, 나는 누구인가?” : 다시 출발선에 서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누구나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대를 맞아서 언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언론인의 역할이 위축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재외동포 언론인들이 다시 출발점에서 스스로 정체성과 역할에 관해 묻고 앞으로 나갈 길을 모색했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김명곤, 이하 세언협)는 지난 4월 2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중구 시민청 세미나홀에서 ‘재외언론인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명곤 회장은 “동포 언론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인 정신의 회복”이라며 “해외에 살면서 많은 일 중에 왜 언론인으로 살고 있는지 초심으로 돌아가 사명 의식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이번 세미나의 의의를 설명했다.

첫째 날에는 김관규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와 최영목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각각 ‘재외 언론인 나는 누구인가’와 ‘언론인과 시대정신’을 주제로 발표하고 참가자들과 토론했다.

둘째 날에는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와 김언경 몽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 각각 ‘재외 한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언론인과 직업윤리’를 주제로 강연 후 종합 토론을 벌였다.

먼저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관규 교수는 ‘모두가 기자’인 세상에서 기존 언론과 언론인의 역할이 퇴색하고 있다며, 미디어 생태계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언론의 미래에 대해, 김 교수는 정보통신기술(CT)의 지속적 진보로 언론인의 뉴스 취재, 제작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AI의 기사작성,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김명곤, 이하 세언협)는 지난 4월 2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중구 시민청 세미나홀에서 ‘재외언론인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스마트폰 동영상, 드론과 보디캠 활용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그는 사건 참여자가 유튜브를 송출 채널로 활용하는 뉴스 동영상이 늘어나고, 일반인이 만든 뉴스 콘텐츠를 일반 시청자만이 아니라 언론인 혹은 언론사의 이용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언론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김 교수는 현안이 발생하는 현장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언론사의 취재 기법은 피상적이고 거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전달자로서의 언론인, 언론사의 역할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하여 유용성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결국 객관성, 공정성, 사실성 등의 전통적 저널리즘 가치에 기초한 언론인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김 교수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언론인과 시대정신’에 대해 발표한 최영목 교수는 언론인은 몰락하고 있는 직업군이고 기존 언론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끝나가고 있으며, 재외동포 언론은 한국 언론과 다른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처한 위기도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재외언론인은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 편집해 주어야 한

다’며 “존재는 끊임없이 편집되고 재구성되고 진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인간은 스토리를 만드는 존재이고 그래서 기록하고자 한다. 기록자로서의 기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언론인이 언론조직에 속한 기자라는 틀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 진정한 기사는 개인이다. 역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진 기록자로서 진리와 진실의 경계 안에서 움직이며 허위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외 언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동섭 교수는 동포 언론의 고유한 기능으로 고국과 거주국 소식 보도, 동포 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 자연재해나 소요 사태 등 위기 상황 시 신속한 정보 전달, 차세대 정체성 강화를 위한 한국어 교육,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여론 형성, 거주국 주류 사회에 한국 알리기, 재외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을 꼽았다.

하지만 그는 “동포언론이 전하던 고국 소식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기능성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동포사회에 꼭 필요한 뉴스를 취사선택해 제공하는 차별화가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동포 언론이 ‘단순한 정보 전달자의 기능’을 넘어서서

동포들이 현지 생활에서 겪는 언어 장벽, 제도에 대한 정보 부재, 문화적 차이 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해설 보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외 언론이 지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 교수는 언론 네트워크 활성화, 공동 취재, 현지 언론 및 한국 언론과의 교류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포언론의 영세한 특성을 감안해 자생력 확보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동섭 교수는 지난 2011년 방대한 분량의 <해외동포 언론의 국내 뉴스 보도 연구>를 펴낸 바 있으며, 당시 드러난 문제들이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채 더 악화한 모양새다.

마지막으로 ‘언론인과 직업윤리’에 대해 발표한 김언경 소장은 한국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언론 윤리의 파행을 지적하고, 미디어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려면 경영이 힘들어도 윤리 강령과 취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키는 노력을 통해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생존을 위한 광고성 기사나 거래 그리고 한국언론을 포함해 다른 미디어의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하는 행위가 나중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곤 회장은 재외동포 언론이 이민 사회에 정보가 넘칠 때 이를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홍콩 수요저널의 손정호 대표는 동포 언론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광고주로부터 독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하고, 취재 역량과 인력 부족으로 사실 확인 없이 제보 또는 보도 자료를 그대로 기사화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인정했다.

손 편집장은 현지 공관과 협력

해 홍콩에서 취업과 창업에 성공한 한인들을 인터뷰한 영상이 한인 유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덕분에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3년간 이어질 수 있었다며, 전문성 강화하고 다른 기관들과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몽골에서 유비코리아타임즈를 발행하는 박창진 대표는 현지 공관의 영사 서비스에 대한 불편을 언급하고, 협회가 나서서 각국 공관의 영사 서비스를 공동 취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면 동포 사회에 지지도 받고 언론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밴쿠버 소재 코리안뉴스의 이덕일 대표는 한국의 공공기관 등이 해외에서 우수 영상 공모전을 열고 입상 작품에 대해 소정의 상금을 준 후 저작권을 가져가는 사례를 경험했다며, 상금보다 더 큰 제작 비용을 투입한 동포 언론사 입장에서는 지원과 격려가 아니라 착취라고 비판했다.

캐나다 밴쿠버 소재 한카타임즈의 김민식 대표는 전 세계 한인 언론의 역할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행하는 데일리인도네시아의 조연숙 편집장은 재외동포 언론은 재외동포의 시각으로 재외동포의 삶과 한국과 거주국의 교류 역사를 기록하는 사실의 기록자라며, 앞으로는 전문성을 강화해 재외동포의 삶과 거주국과 한국과의 교류 의미를 해석해 전달하는 의미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제안했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매년 두 차례 서울에서 모여 심포지엄을 열고, 회원사들이 세계 각지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며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나누고 자사만이 아니라 다른 회원사들과 함께 겪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위로 받으며, 작은 경험들을 나누고, 전문가로부터 배우면서 부분적이거나 해법을 찾도록 돕고 있다. (끝)



BS 476 Fire Test “CLASS 0”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Door Trim, Sun Visor, Headliner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매트,구멍조끼,수영보드,헬멧 및 장갑,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 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 E 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환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toilon.co.id



인니 정부, 외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탄소크레딧 구매 허용



▲2015년 수마트라 산불로 인해 발생한 연무가 자카르타에 도달한 모습/2015.10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탄소 시장에서 탄소 크레딧(carbon credits)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다국적 기업과 기관은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탄소 거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탄소크레딧은 외부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달성한 배출량 감축분을 인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시장거래가 가능하도록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탄소 거래 계획에 관련된 기업들은 이 결정이 2016년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과 일치한다고 환영했지만, 환경 분석가들은 이 거래가 실질적인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4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해양투자조정 장관실의 녹색경제 전문가 에도 마헨드라는 4일, 인도네시아 탄소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외국인 구매자들이 그들의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탄소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릴 투자부 장관은 자국 내 탄소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는 국가 등록 시스템(national registry system, SRN)에 등록되어야 하며, 거래 절차는 인도네시아의 탄소 거래소를 통해 이

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릴 장관에 따르면,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되고 기업이 환경부에 등록된 후에는 증권 거래소에서

다국적 기업과 기관은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탄소 거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탄소크레딧은 외부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달성한 배출량 감축분을 인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시장거래가 가능하도록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탄소 거래 계획에 관련된 기업들은 이 결정이 2016년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과 일치한다고 환영했지만, 환경 분석가들은 이 거래가 실질적인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4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해양투자조정 장관실의 녹색경제 전문가 에도 마헨드라는 4일, 인도네시아 탄소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외국인 구매자들이 그들의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탄소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릴 투자부 장관은 자국 내 탄소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는 국가 등록 시스템(national registry system, SRN)에 등록되어야 하며, 거래 절차는 인도네시아의 탄소 거래소를 통해 이

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릴 장관에 따르면,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되고 기업이 환경부에 등록된 후에는 증권 거래소에서

들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한편으로 탄소 교환이 인도네시아 경제를 세계 경제 변동성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아마드는 말했다.

인도네시아 산림 개발업 협회(APHE)의 인드로요노 수실로(In-droyono Soesilo) 회장은 인도네시아가 개방형 탄소 교환을 결정하기 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나중에 정부는 NDC 목표를 매년 계산하도록 준비했다며 현재의 움직임에 대해 환영했다.

예를 들어 1,000만 톤의 기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컨세션이 있을 경우, 산림 벌채를 줄이고 재조림 확대와 같은 완화 노력을 더 시행한 후 1,200만 톤의 탄소를 흡수하여 2백만 톤의 잉여를 얻을 수 있다.

그 컨세션이 NDC에 150만 톤을 기부해야 한다면, 나머지 50

만 톤은 탄소 교환을 통해 팔 수 있다고 인드로요노가 설명했다. NDC 목표치에 우선 순위를 두고 나머지 초과분은 자발적인 탄소 시장을 위한 것이다. 자발적 탄소 시장은 다른 곳의 다양한 출처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것이 국내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정부의 NDC 목표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카르타에 기반을 둔 환경 감시 단체인 트렌드 아시아(Trend Asia)의 연구 관리자인 작끼 아말리(Zakki Amali)는 4일 외국 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이 국가가 NDC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심하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올해 발전소 하위 부문의 탄소 거래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소량

목표를 50만 톤으로 삼고 있다. 이는 산림과 토지 사용 다음으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배출원이다. 하지만 이 감소량은 석탄 발전소의 2억 5천만 톤에 달하는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0.2%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탄소 거래는 정부의 배출 감축 주장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배출량을 검증하고 계산하는 데 있어 투명성이 부족해 탄소 거래 계획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도네시아의 탄소 거래는 올해 시작되었지만 탄소 거래소가 아직 개발 중인 동안 전력 부문에만 적용됐다. 정부는 2021년 조세조화법에 따라 2025년 이후에나 다른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아체서 술 먹고 난동부린 호주인, 태형 40대 가능성 아체 주, 샤리아 율법 적용...음주 적발 시 태형

호주인 20대 남성이 인도네시아 아체에서 술에 취해 나체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돼 태형에 처할 상황에 놓였다.

29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퀸즐랜드주 출신 호주인 리스비 존스(23)는 지난 27일 오전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시므울루에 섬에서 아체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술에 취해 나체로 마을 도로를 걸어 다니며 소리를 질렀고, 이를 말리려던 현지인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 일로 한 여민은 뼈가 부러지고 50바늘을 꿰매야 하는 열상을 입었다.

이곳에서 휴가를 즐기던 존스는

전날 서핑을 하다 일사병에 시달렸고, 숙소에서 쉬면서 가져온 보드카를 마셨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호주 ABC 방송은 존스가 다른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술을 마신 혐의에 대해서는 태형 40대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수마트라섬 북서부의 아체주는 동남아시아의 ‘메카’로 불리는 등 이슬람 전통과 근본주의가 강하다.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벌이다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자치주로 인정받았고 2001년부터 샤리아(이슬람 관습법)를 법률로 시

행하고 있다. 샤리아 법에 따라 아체에서는 성폭력 범죄와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공공장소 애정행각, 외설적 행동 등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으로 다스린다. 이는 무슬림과 비무슬림 모두에게 적용된다.

2021년에도 비무슬림인 인도네시아인 3명이 아체에서 술을 마시다 종교 경찰에 체포돼 회초리 40대를 맞는 태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호주 외교부는 존스에게 영사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목길상회
매일 식품
슈퍼
방진
BRAND T
LOTTE ALLEY

QR Code
Lotte Alley Kuningan Jakarta, Indonesia
We are your partner in building your dream space for your business & living

2000년 회사 창립 이래,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의 법인 운영을 통해 인테리어의 모든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저희는 인테리어 전문 기업 HDG입니다.

Interior Design Construction

& Space Identities by HDG

- Interior Design
- Material Sourcing
- Interior Construction
- Furniture Production

HDG HDG HOME

Senopati, Kebayoran baru, South Jakarta - Indonesia | linktr.ee/HDGinterior
P : +6221 7205 007 M : +62 812-8759-0706 (ID) / +62 811 1124 998 (KOR) E: admin@hdg21.com

건설, 토목, 플랜트

- POSCO E&C INDONESIA**
자카르타 021 7273-4686
- PT. SEOHEE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91-6001
- PT. KORINDO HEAVY INDUSTRY**
땅그랑 021 595-0088
- 대림산업**
자카르타 021 5296-1060
- 롯데건설**
자카르타 021 5060-7257
- PT. POWERTECH**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20-2025
- 쌍용건설**
자카르타 021 5795-0377
- 두산중공업**
자카르타 021 2995-0102
- 현대건설**
Engineering&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71-3700
- 현대 중공업**
자카르타 021 2945-5201
- 대우건설**
자카르타 021 250-6555
- GS건설**
자카르타 021 5785-3182
- SK ECO PLANT**
자카르타 021 2709-4662
- SK TECH**
자카르타 021 520-2025
- 삼한기업**
자카르타 021 520-7439
- 삼성물산**
자카르타 021 527-8182
- 현대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269-4208
- PT. ALAM DUNIA ENG & CONST(ADEC)**
Civil-Architecture-Electrical-Mechanical
땅그랑 021 5579-8505
- 계룡건설**
자카르타 0813 9809-7914
- PT. ELJINDO**
토목, 일반건설, 공장중축
자카르타 021 7883-3357
- PT. SPACE TECHNOLOGY**
플랜트 및 공장 설계/제작/시공/O&M
찌까랑 021 8990-2215
- PT. P&I INDONESIA**
Heavy Machinery, Supplier,
Construction & Port Crane
땅그랑 021 5579-3855
- PT. TUNAS DUNIA**
자카르타 021 2936-3664
- PT. ACE ENGINEERING & CONSTRUCTION**
Civil-Architecture-Electrical-Mechanical
(UJPLT(Solar Plant))
자카르타 021 2782-2600
- PT. SSA**
EPC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62 812 1955-5736
- PT. DAEAH E&C INDONESIA**
건축, 토목, 플랜트
반트 021-5574-1492
- PT. HAN JIN KONSTRUKSI INDONESIA**
General Engineering & Construction
Contractor
세랑 반트 0254 402323
- SHINHWA TECHNO PLANT**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찌까랑 021 8984 1283
- PT.UTAMA JAYA TEKNIK**
Engineering, Construction &
Manufacture
땅그랑 021 5577 4507~09
- PT. HANS JAYA UTAMA**
건축, 토목, 플랜트
자카르타 021 7919-2055
- PT. WOOL INDONESIA**
플랜트, 기계, EPC
땅그랑 021 5935-0229
- PT.HAECHANG DEVELOPMENT**
토목(타널)
자카르타 0811 610 3042
- PT. KMU**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0813 1939 2260
- INI GEO**
친환경 옹벽, 사면보호, 벽면녹화
자카르타 021 581-4742

인도네시아 건설 및 관련업종 디렉토리

인도네시아 한인 건설 및 관련 업종의 정보 디렉토리입니다. 게재를 원하는 업체는 업체의 기초정보를 본지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다음호 부터 게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khong3000@gmail.com, 0821 1122 8827

- PT. KUMYI PLANT INDONESIA**
JAKARTA SELATAN
자카르타 (021) 726 9976
- PT. KUMGANG HYUNDAI INDONESIA**
커튼월 및 창호 방화도어, 셔터, 자동문 각종 패널 공사
땅그랑 021 5568 5408
- PT. KSK BANGUN KARYA**
건설, 토목, 플랜트
자카르타 021 7591-2718
- PT. Muns Cipta Bangun**
토목, 철골, 건축, 인테리어
땅그랑 021 5541 747

공단 및 지사

- 한국 수자원 공사**
자카르타 021 5140-0025
- 한국 농어촌 공사**
자카르타 021 7591-3414
- 국가철도공단**
자카르타 021 5058-8812

ENGINEERING

- PT.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021 652-0449
- 도화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140-0996
- PT. 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652-0449
- PRATAMA JAYA**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6-8070
- PT. P-CRANETECH ENG & SERVICES**
자카르타 021 5435-0412
- SAMSUNG C & T Corporation**
자카르타 021 2988-0418
- 대영 엔지니어링 (DY)**
자카르타 021 5794-5766
- PT. DAEKYEONG E&C**
Engineering & Construction
세랑, 반트 0254 848-7678
- PT. CNEX ENGINEERING CONSTRUCTION**
Supply and Instalation,
Fire Alarm and Fire Fighting System
자카르타 021 2920-4684
- PT. JINWOO ENGINEERING**
땅그랑 021 597-7810
- PT. GLOBAL SUNG JUOO**
General Constructio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2538
- PT. MULTI PERSADA**
Construction & Engineering , Civil,
M&E, Treading
땅그랑 021 5578-0702
- PT. PAJAR EKA YOUONE(FEY)**
Engineering & Construction
땅그랑 0254 781-3709
- PT. FAJAR EKA YOUONE(FEY)**
Engineering & Construction
땅그랑 0254 781-3709

건축설계 사무소

- 정림건축종합건축사무소**
자카르타 0852 1561-9583
- PT.MSP(MAKMUR SISTIMINDO PERKASA)**
자카르타 021 721 0356

전기

- SHINHWA TECHNO PLANT**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찌까랑 021 8984 1283
- LS Electric (구 LS산전)**
전력 수배전 해외사업부
자카르타 0212933-7614
- 정석 테크 아바디**
종합전기, Electrical & Supplier
땅그랑 021 5566-2989
- PT. FIRDAUS INDONESIA**
Mechanical, Electrical, General
Supplier & Contractor
땅그랑 021 5940-2939

- PT. BNC MACHINERY INDONESIA**
Electric Rebar Bending, Cutting Machines & Auto.
자카르타 021 5435-3589
- PT. YOOHAN ELECTRIC & C**
Agen Cable Listrik (Eterna, Voksel & JJ-Lapp Cable), Elektrik Equipment
땅그랑 021 5574-6345
- PT. YUCOM JAYA MANDIRI**
General Contractor, Mechanical
Electric, General Traiding
땅그랑 021 5949-2764
- PT. UTAMA JAYA TEKNIK**
Electrical, Mechanical, Civil, Desig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4507
- PT. SAMJIN INDONESIA ENC**
전기, 통신, 소방공사
자카르타 0812 8293-0448
- PT. WOJIN CONSTRUCTION**
Electrical, Mechanical, Fire alarm,
자카르타 021 8991-3049

건축자재

- PT.DWI MITRA ANUGRAH**
에폭시, 바닥시공
021 880-3515, 0812 100-0055
- PT. BITUTEK**
지붕자재 아스팔트 싱글, 방수시트 제조
찌부부르 021-2906-0202
- PT. TOILON INDONESIA**
Duct Insulation, Pipe Insulation, Roof
Insulation, Bag Component, Playing
Mat, Automotive Part
땅그랑 021 5940-4086
- PT.ARI TECH INDONESIA**
공장수질개선, 정수시스템
0815 4655-5680
- PT. MIDAS INDONESIA**
U-PVC 지붕자재
땅그랑 021 5428-7777
- PT. ASIA CHEMICAL INDUSTRY**
산업용 특수페인트
땅그랑 021 5579-0456
- PT. MIRAN METAL INDONESIA**
Produksi & Contruksi Plat Besi,
Stainless, Galvanis, V-Cutting, Tekuk
땅그랑 021 596-9775
- PT. SIAN U-PVC**
U-PVC System Window, ABC Door
보고르 021 8794-3838
- PT. EROM ABADI INDO**
건축자재, 소모품 유통
브카시 021 8991-2061
- PT. CTS GLOBAL INDO**
친환경 방음, 차음 펜스 생산
찌까랑 021 8991-2061/63

- KORINA TOOL**
Power tools, Scurity Tool, Mold Materials,
땅그랑 021 5940-0081
- PT. MITRA METAL**
Metal Spray, Ceramic Coating,
Tungsten Carbide, Fabrication
땅그랑 021 596-0522
- PT. KYUNG HEUNG INDONESIA**
Sandwich Panel TM Roof & Wall, Steel
Structure & Contractor
자카르타 021 530-7244
- PT. ANEKA PANEL INDONESIA**
Manufacture of Sandwich Panel
자카르타 021 797-8989

- PT. SUNWOO HOME INDONESIA**
Manufacturing Stainless Steel Pipes
땅그랑 021 5940-0288
- PT. TOILON INSU PANEL**
Insulated Panel
땅그랑 021 5579-7181
- PT. FAJAR EKA INDOTAMA**
Steel Structure Fabricating, Piping
(FAB & Instal), Mechanical Construction,
땅그랑 021 5444-393
- HYUNDAI ALUMINIUM CO.,LTD**
자카르타 0812-8706-7437
- PT. PUTRA HANKUK**
Steel Con's & Civil Engineering
자카르타 021 525-5784
- PT.DANAKORINDO JAYA**
Steel
땅그랑 021 5510-588

- PT. KUMGANG INTERNATIONAL**
Curtain wall & Aluminum window/ Fire
door & shutter.
자카르타 021 5568 5408

- HANSHIN**
컴프레사
땅그랑 021 5949-4000

- PT. DONG SUNG TOOLS**
공구 머신틸
찌까랑 021 8990-2723

- PT. SMART TECHTEX**
Door, Windows, Platon
자카르타 021 522-7983

- 에스와이패널**
EPS 패널
땅그랑 021 2932-5742

- PT. WARNATAMA CEMERLANG**
에폭시
땅그랑 021 590-1888

- PT. PRIME CON INDONESIA**
바닥코팅
땅그랑 021 5316-3787

- PT. SEJIN LESTARI FURNITURE**
Door, Furniture
땅그랑 021 591-8496

- PT.NEWSUN**
안전화
땅그랑 021 2901-7310

- PT. DOLSEOK INDONESIA**
지붕재, 방수시트
땅그랑 021 2259-7930

- PT. HYDRO JOTALINDO PERKASA**
Master Dealer Lampung Sand
Blasting & Painting Applicator
람땡 0721 780 151, 0721 781 457

- PT. KCC INDONESIA**
페인트
자카르타 021 3002-7184

- PT. KCCI CHEMTECH INDONESIA**
에폭시 바닥재, 접착제
쯔빠라 0291 751-2706

- PT. LEBIH BAGUS**
친환경 가설
자카르타 0821 1331 3430

- CV.TROPIKA PERKASA**
각종가구 / 건축용 합판
버카시 0811 1929 350

- PT. Lineone indonesia**
Scaffolding Fabrication
땅그랑 021 5574 1492

- PT. TOPSCO STEEL UTAMA**
KRAKATAU POSCO 후판공급
질레곤 0813 8039 7748

- PT. KTC MITRA INDONESIA**
U-PVC, 알루미늄도어, 창문, 하이샤시
보고르 021 8792-9422

- NEXTIN**
LED, Special Lighting
자카르타 021 3104-414

- PT.indobaja**
방화문제작, 철재절단, 절곡
땅그랑반트 021 5935 5882

- ECO INTERNATIONAL**
맨홀뚜껑 & 그레이츠
0815 8989 667

- PT. IMGLOBAL [PAPERYARN]**
건축자재, LVR, DECO, DELUXE TILE
자카르타 021 2247-6211

설비

- PT. TOPINDO TEKNIK ABADI**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021 7918-1917
- PT. HYUNDAI ELEVATOR INDONESIA**
Maintenance & Repair, Spare Parts
자카르타 021 631-8444
- PT. GEOSUNG SYSTEM INDONESIA**
Multizone Airconditioner Clean room plane,
HVAC Thermo-Hygrostat, Maintenance
질레곤 025 434-0319
- KUMSUNG INDONESIA**
Agen Samho Boiler
자카르타 031 664-1641
- PT. MIURA INDONESIA**
Best Partner for Energy, Water,
자카르타 021 2902-2342
- PT. KOREA FIBLON**
Lighting Innovation
자카르타 021 4280-1604

- WOORIZEN INDONESIA**
The Energy Saving Solution
자카르타 021 386-2228
- PT.GEUM CHEON INDO**
판금가공
땅그랑 021 5940-2454
- PT. JM EKA PERSADA**
대차, 바퀴, 팔렛, 트레이
땅그랑 021 558-6446
- PT. TOP ABADI**
팔렛 작업대, 대차
찌까랑 021 8990-2241
- PT. HYUNDAI FACADE ALUMINIUM INDONESIA**
땅그랑 021 2901-5282
- PT. ECO international**
맨홀(Manhole),그리스트랩
자카르타 021 2782-8878
- PT. SUNG HWA PLUS**
Total Fire Protection Solutions
자카르타 021 4064-2114

인테리어

- HDG**
Interior, Branding,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7205-007
- 채움디자인**
Design & Build
자카르타 021 8946 9398
- PT.WELLZ-IN(웰즈인)**
Interior Furnitur & Architecture
자카르타 021 7884-9247
- PT.DESIGN ACE**
Creative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Furniture, Sign
자카르타 021 7590-8858
- PT.DECOREE INTERNATIONAL**
Interior, Architecture, Creative Design
자카르타 021 8066-7038
- INI GALLERY**
INTERIOR & FURNITURE
자카르타 021 581-4742
- PT.DUNIA INDAH MAKMUR**
K-Wallpaper & Wood Vinyl Flooring
찌부부르 021 8431-0753
- PT. EOK ECO INDONESIA**
인도어, 아웃도어, 인테리어
자카르타 021 7919-2426
- PT. INDOKOR**
Interior & Total Solution
찌부부르 021 8430-7773
- PT. KES INDONESIA**
Interior & Exhibition
땅그랑 021 558-2105
-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자카르타 021 7278-0704
- YOU & YOU INTERIOR**
021 719-1285

포워딩

- F1 LOGIX**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797 6237
- ABADI TRANS LOGISTIC**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4683 6025
- PT. ACE MULTITRANS CARGO**
International Air and Sea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2260 4233
- PT. DUNIA TRANSPORTASI LOGISTIK**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4287-0098
- (주)소리항공**
PT.BINTANG JAYA TRANS
자카르타 0851 0046 3552
- PT. WIRAWAN KAWAN SEJAHTERA (WIKAS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8379-1935
- PT. CAHAYA INDAH LOGISTIC**
As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2751-3783
- PT. HANINDO EXPRESS UTAMA**
건설장비 운송
자카르타 021 252-5123
- KAS EXPRESS**
자카르타 021 2938-2773
- KPL**
자카르타 021 422-9282
- PT.EAST GLOBAL LOGIX**
자카르타 021 8063-0760
- PT.KCTC INTERNATIONAL LOGIX**
자카르타 021 797-5959

PT.PENASCOP LOGISTIK TRANSNIAGE
항공/해상, 수출입통관
자카르타 021 2867-3944

PT.LogisALL Global Indonesia
자카르타 021 8066-7220

PT.JUST IN TIME
자카르타 0813 1030-4644

PT. Pertama Logistic Service
망그랑 021 558-6446

PT. KORNET LOGISTICS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항공/해상 수출입 통관
자카르타 021 4587-7350

PT.GLOBAL CHEM INTERNATIONAL LOGISTIC & TRADING
짜까랑 021 2956 3356/57

ITL INTERNAS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
자카르타 021 5011 2120

PT.KGL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56 3356/57

중장비, 기계

현대건설기계
중장비
자카르타 021 5290 1493

PT.SUMA SUKSES SEJAHTERA
자카르타 021 522-2241

DAEWON CRANE GLOBAL
망그랑 0812-1200-3344

PT. HD FORKLIFT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61-6497

반도 크레인
크레인 호이스트
자카르타 021 3002-7804

PT.CNB MACHINERY INDONESIA
건설관련 기계판매
망그랑 021 5572-1090

컨설팅

OK 컨설팅
인허가, 비자, 세무, 부동산, 여행사
자카르타 021 7504-578

두왕 컨설팅
법인설립, 기업법률자문 전문
자카르타 021 2941-1043 (ext 102)

WINNERS CONSULTING
키타스,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5012-3277

반석 컨설팅
세무회계,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7918-9193

PT. GAON INDO JAYA
키타스, 법인설립
망그랑 021 5579-4626

PT. BNG CONSULTING
세무, 회계
자카르타 021 522-2739~40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망그랑 021 5577-6454

PT. JOO CONSULTANT
세무, 회계
망그랑 021 558-1616

WOORI CONSULTING
키타스,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7918-4264

BNC CONSULTING
법인설립 및 키타스 진행
021 2912-6495/6

PERMATA FORTUNE INDONESIA
법인설립 및 키타스 진행
021 799-6182

통신, CC TV, 보안

PT. KINEZ
인터넷, 통신, CCTV
망그랑, 짜까랑, 브카시, 스미랑, 자카르타, 보고르외
021 3002 9000

PT. GLOBAL SUMBER JAYA
CCTV/PABX/Access Control/
자카르타 021 7251-606

PT. D&B NETWORK
자카르타 021 2938-5398

PT. TELE GLOBE GLOBAL
Elec. Mechanical Eng & Construction,
브카시 021 8240-0880

컴퓨터 원
CCTV, Computer
망그랑 021 5579-6399

HANSTAR
인터넷 CC TV
자카르타 021 2906-7229

건물관리, 용역

ECONE
건물관리, 용역, 방역, 살균,
자카르타 081 1111 8057

재인니 한국 건설협회
가입 및 문의
박건우 부회장
(0815 1902 4123)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한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원·루피아 직거래 추진

한국은행은 2일 이창용 총재가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와 양국 원·루피아화 직거래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두 나라는 경상·직접 투자 거래 과정에서 민간 은행이 원화·루피아화 직거래를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여

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양국 간 금융 협력 강화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 자국 통화 사용을 통해 기업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외환 리스크(위험)를 줄여 궁극적으로 두 나라 교역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원·루피아 직거래 추진 [한국은행 제공]

세계로 수출하는 산업용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섬유 / 목재 / 종이 / 석탄

노통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1T/H~15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증유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증유

• 섬유, 봉재, 신발, 기타 산업용 보일러
• 보일러 Maintenance(세관작업, 보수관리, 청관제)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Tel : 021.5980.222 / 5982.666
한상윤 Hp : 0822 9999 1447 Fax : 021.5984.666
Ruko Tatac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938 0006
Jl. Setrekan-Pentol. Troso RT 007 / RW 010,
Kec. Pecangaan Kab. Jepara, Jawa Tengah, 59462.



Kawasan Industri Rangkas Bitung by PT. Muns Cipta Bangun

최적의 산업단지 분양!

왜 멀리서 찾지?

우리가 몰랐던 이곳! ... 공항, 항만과 망그랑 도심 가까이 저렴한 인건비, 노동인력 풍부한 지역으로 100hr 규모로 조성합니다!

문의처 : 081190097773 (whatsapp)
kakaotalk ID : muns.id
Email : munsclub@muns.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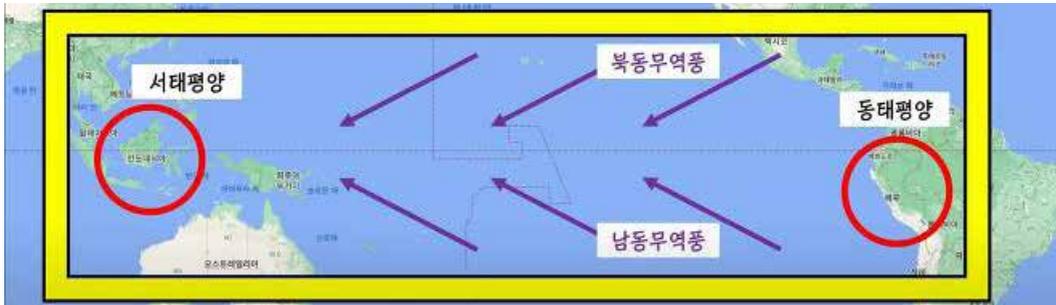
Grand Serpong Mall (Great Western Resort) Lt. UG No. 6,
Jl. MH. Thamrin KM. 2.7, Kebon Nanas, Kel. Panunggangan Utara,
Kec. Pinang, Kot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143
Tlp. 021-5541747 | E-mail. munsclub@muns.id, munsclub33@gmail.com
www.muns.id

1. 위치 : Rangkas Bitung, Lebak, Banten
2. 면적 : 100 hr (1,000,000 M2)
3. 공단개발지 산업용지로 지정 완료.
4. Serang-Panimbang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이 용이함. Tol Gate에서 10분거리.
5. Kabupaten Lebak 인구수 : 2020년 조사기준 약 138만명
6. 최저임금 : 2023년 기준 Rp 2,944,665 으로 BANTEN주내 최저이며, 인구가 많아 노동집약적 산업에 적합함.
7. 분양가 : Rp 800,000/M²
7.1 부가세, 취득세, 이전비용 별도
7.2 공단내 도로, 배수로 및 부지평탄작업등 기본토목공사 완료기준.
8. 시행 및 시공사 : PT. Muns Cipta Bangun

출발지	거리	소요시간
Gerbang Tol Tangerang	85 Km	1H 10M
Air Port (CGK)	103 Km	1H 30M
SCBD Jakarta	108 Km	1H 40M
Tanjung Priok Port	121 Km	2H 30M

WMO의 경고 “라니냐 가고 엘니뇨 온다...지구기온 기록적 상승”

“온난화 가속...폭염·홍수·가뭄 대비해야”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3년간 이어졌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 반대 현상인 ‘엘니뇨’가 도래해 지구 곳곳에 폭염과 홍수, 가뭄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기상기구(WMO)는 3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커지고 있으며 지구 기온 상승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WMO는 2020년 9월 발생해 3년 넘게 지속했던 라니냐 현상이 3년 만에 종료됐다고 진단했다. 동태평양 적도 지역 바닷물이 정상시보다 낮아지는 라니냐가 끝나고, 이 지역으로 고온의 서태평양 해수가 물려가는 엘니뇨 남방진동(ENSO) 현상이 뒤따를 가능성이 생겼다.

현재 태평양 적도 지역 바닷물의 수온은 큰 변동이 관측되지 않는

‘ENSO 중립’ 상태에 있다고 WMO는 전했다. 이런 ENSO 중립 상태가 엘니뇨로 전환할 확률은 올해 5~7월 60%에 이르며 6~8월에는 80%까지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WMO는 엘니뇨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기록적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3년간 이어진 라니냐 역시 가뭄과 폭우, 산불 등 기상 이변과 자연 재해를 초래하지만 지구 기온

상승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효과를 내는데, 최근 몇 년간 온실가스가 부른 기온 상승을 막아내지 못했다.

보고서는 “지난 3년 동안 라니냐로 인해 지구 기온 상승에 일시적인 제동이 걸렸는데도 우리는 기록상 가장 따뜻한 8년을 보냈다”면서 “엘니뇨가 발생하면 온난화는 가속화하고 지구 기온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엘니뇨와 온실가스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 2016년이 기록상 지구가 가장 더웠던 해였는데, 다시 엘니뇨가 도래하면서 이와 비슷하거나 더 심화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WMO의 분석이다. 통상 엘니뇨가 지구 기온에 미치는 영향은 발생 이듬해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만큼 내년에 지구 기온이 절정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엘니뇨는 보통 1년 가까이 지속하면서 지구 기온 상승과 함께 여러 가지 기상이변을 만들어낸다.

남미 남부와 미국 남부,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를 유발하는 경향이 크다. 중앙 및 동쪽 태평양에서 허리케인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도 꼽힌다.

반면 호주와 인도네시아, 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선 극심한 가뭄을 초래하기도 한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엘니뇨가 도래하면 라니냐의 영향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더 극단적인 기상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엔이 조기에 위험을 알리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 일반 인버터 타입 대비 **4%** 더 에너지 절약가능한 타입
2. FYH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유성열 : 0812 8037 0303 | 한상윤 : 0822 9999 1447 | Mariono : 0812 8763 965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JEPARA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